

## 조건 없는 대화는 없다

홍우택 (통일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1-05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지적하였고, 미·중 공동성명 발표 직후인 지난 1월 20일 북한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을 제의하였다. 북한의 제의에 남한이 예비회담 일정을 역제의 하면서 한동안 시야에서 사라졌던 ‘대화’가 남북 간의 또 다른 관심거리로 등장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대화의 형식, 즉 조건부 대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건이 없는 대화를 할 것이냐를 놓고 남북 간은 물론 남한 내부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화의 조건은 없어야 좋은 것일까? 그래서 남한은 조만간 열릴 남북대화에서 대화의 조건을 내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또한 남한은 어떠한 자세로 대화의 조건에 임해야 하는 것일까?

남한은 북한에 제의한 회담에 조건을 달았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6일 국방부장관 명의로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다음 달 11일 판문점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에게 보낸 이 전통문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 약속’을 고위급군사회담의 의제로 삼겠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핵 문제에 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다.

이러한 남한의 조건부 대화제외에 북한은 진정한 대화 자세는 조건이 없는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이 북한에 회담을 제의한 같은 날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일방적인 전제조건을 내세우거나 여러 대화의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하려는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마도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해 사과표명을 전제로 한 군사회담제외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회담이 6자회담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남한의 입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표면상으로 조건이 없는 대화는 이루어지기도 쉬우며, 이렇게 이루어진 대화는 타결점 또한 쉽게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그러나 조건이 없는 대화나 회담은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 간 대화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가하게 마주 앉아 신변잡기나 날씨이야기를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겉으로 들어난 모습을 보면 남한이 군사회담의 의제로 삼겠다고 한 북한의 도발사과와 북의 핵포기 의지를 남북회담의 전제로 삼은 것은 대화의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이 제시한 전제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교묘하게 대화의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 회담의 조건은 회담의 의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북한은 남한이 제시한 의제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다른 의제를 논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화는 할 수도 있고 또 안할 수도 있다. 전쟁 중에도 당사자들끼리는 회담을 하기도 하고, 사이가 원만한 당사자들끼리 몇 년이 지나도록 회담한번 하지 않기도 한다. 왜냐하면 국가 간에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호간에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한쪽만 대화가 필요하다면 그 대화는 성사되기 힘들다. 대화의 필요성을 갖지 못하는 당사자가 한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고 하더라도 그를 움직이기란 쉽지가 않다. 적어도 그가 원하는 것을 주기 이전에는 더욱 그렇다.

현재 정황을 보면 북한이 지난해 도발한 행위들에 대해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더구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남한은 대화를 열어 북한의 사과를 끌어낼 필요성이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 어쩌면 도발에 대한 사과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도 없다. 따라서 대화 자체에만 매달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남한이 해야 할 일은 남한이 어떠한 조건을 대화에 걸더라도 북한이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다. 긴 안목으로 억지역량을 갖추는데 우선 주력해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나, 바로 이어서 북한이 제기한 남북군사회담 제의는 긴 선(線)위의 하나의 방점(傍點)에 불과하다. 이 선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과 새로이 거래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의 시점에서 대화 자체에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